

# 産業化에 關한 神學的 一考察

薛 三 龍\*

- I. 非人間化 要素
  - II. 人間化 作業
  - III. 生態學에의 接近
  - IV. 教會의 機能
- 參考文獻

## I. 非人間化 要素

전쟁도발, 대량학살, 고문, 폭정, 탄압 등이 종래의 非人間化를 意味하는 用語라면 가난, 組織化된 犯罪團體, 環境汚染, 資源民族主義, 政治的 經濟的 부패 등등은 오늘날 社會의 非人間的인 망령임에 틀림없다.

한편 開發途上國家의 共同運命처럼 지향하고 있는 産業化 추세가 表面的으로 가난이 추방되고 GNP가 늘어감에 따라 어느 누구도 産業化의 이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자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 産業化 隊列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허다한 非人間的인 要素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現實도 再檢討의 對象이 아닐 수 없다.

産業化가 가져오는 非人間化要素를 크게 셋으로 分類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人間의 兩極化現象이다. 우선 産業化의 價値觀은 「잘살아 보자는 것」이다. 잘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어도 빠른 時日안에 效果적으로 벌어야 경쟁적인 社會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 법이다. 節次倫理의 信奉者들은 남에게 뒤지기 알맞은 세상이다. 正當한 節次를 省略하고 지름길로 달려가는 소위 速度主義者가 되고 效果至上主義者가 되어 온갖 便法이 난무하더라도 最短期日內에 能率極大化만을 지향하게 된다.

個人企業은 急速한 産業化의 물결을 타고 뭇돈을 벌기 위해 순수한 奉仕動機를 망각하고 지나친 利得動機로 둔갑하여 致富를 노린다.

여기에서 私有資本主義體制의 弱點인 構造的인 矛盾을 超來하여 配分的 正義는 말살되고 貧

\* 文理科大學(大田) 專任講師

益貧 富益富의 兩極化現象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世界는 가진자와 못가진자(haves and have nots)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풍요한 사회(affluent society)는 안가진자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른바 非人間化現象이 일어난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一般庶民들의 貧困意識은 富者를 淸富로 보지 않고 粹富로 判斷하여 社會의 不安定이 야기된다.

食糧의 豊富한 生産보다는 그 生産된 食糧의 分配가 더 重要한 問題이며 私有資本主義 體制에서는 均等한 分配는 거의 不可能하며 平等의 限界性이 있다고 하지만<sup>(1)</sup> 땅의 利益은 못사람의 利益을 爲하여 있으므로<sup>(2)</sup> GNP가 늘어간다는 말은 곧 서민층의 수입도 同時에 늘어간다는 말과 직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人間의 道具化現象이다.

現代産業社會에 있어서 勞動의 領域은 大部分이 最高度의 權威主義的 색채를 띠고 있으며 軍隊를 除外하고는 가장 非民主的인 社會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sup>(3)</sup>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關係는 본래 성격상 命令과 服從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는 고용주의 命令에 따라 勞動을 하고 보수를 받을 뿐이다. 所有權이 있는 사람이 勞動의 條件과 規定을 定하는 것이 當然하다. 고용주는 土地와 建物과 道具와 材料를 所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용된 자를 부려먹을 수 있다. 여기에 人間다움이 喪失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自己가 노예처럼 他人의 所有가 되어 하나의 道具처럼 利用 當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人間을 道具로 부려먹다가 人造人間이 출현하자 無人工場의 꿈이 實現되고 Automation으로 人間機能을 機械가 代行하게 되자 미숙련공과 낡은 기술자들은 모두 쫓겨나고 노동 취업인구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새로운 道具 앞에 옛 職工은 生存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쫓겨난 人間道具들은 가두를 누비게 된다.

이와같이 近代化를 밀고가는 經濟 위주의 社會일수록 오히려 人間 위주의 삶에 關한 問題는 망각되기 쉬운 일이며 便利와 신속과 풍요와 안락이 價値基準이 되어있는 오늘날 테크노로지의 價値觀에 “人間다움”을 주축으로 하는 根本的인 試圖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모든 權力<sup>(4)</sup>은 고용주로부터 나온다는 概念을 脫皮하여 피고용인을 生産의 道具(The Means of Production)<sup>(5)</sup>로 여기지 아니하고 엄하게 부리지 말며 約定된 보수를 지불하

(1) Gerhard Breidenstein, Humanization, trans. by Chong Wha Park, p. 88.

(2) 전도서 5장 9절.

(3) Breidenstein op. cit., p. 131.

(4) George D. Younger, The Church and Urban Power Structure, p. 23. Power(權力)라는 單語는 헬라어의 *εξουσια*, 라틴어의 *auctoritas*, 영어의 *authority*에 該當하는 單語로서 이 권력의 所有者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概念이 包含되어 있다.

(5) Harold O.J. Brown, Christianity and the Class Struggle, p. 60.

고 고용기간이 끝남과 同時에 그들대로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權限을 最大限 부여하여<sup>(6)</sup> 그 나라와 그의 義를 求하기 爲한 궁극적인 目的下에<sup>(7)</sup> 어린 소자에게 마음으로부터 湧어나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성서적 見解를 確立해야 할 것이다.<sup>(8)</sup>

고용주가 좋은 商品을 大量生産하여 效果的으로 分配했음에도 不拘하고 피고용인의 강한 道德的 적개심이 야기되었다면 여기에 어떤 非人間化의 要素가 있었음을 發見해야 할 것이다.<sup>(9)</sup>

세째로 人間의 機械化現象이다.

Harvey Cox는 福音이 기술 개발에 끼친 貢獻을 크게 셋으로 區分하고 있다.

첫째 自然의 脫神話化, 둘째 人間勞動의 價値化, 셋째 變化의 可能性이다.

創世紀의 創造說話는 하나님과 自然界를 갈라놓고 삼라만상은 人間을 爲해 하나님께서 주신 食物이며<sup>(10)</sup> 이 땅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그것을 利用하여 機械를 만들고 世界를 잘 가꾸게 祝福하신 것이다.<sup>(11)</sup> 이 思想이 기술개발에 크게 貢獻한 것이다.

또한 聖書의 勞動觀은 事物을 만드는 工作人(Man-the Maker)으로써 땀흘리고 수고하여 各 種 職業에 종사케 하셨다<sup>(12)</sup> 는 思想이 勞動에 신성한 價値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人間의 變化에의 意慾은 自然的現象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면서 變化의 主人公이시다. 萬物을 새롭게 하시며<sup>(13)</sup> 前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새 일을 만드시고 계시는 분이시다.<sup>(14)</sup>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사 變化의 역군으로 쓰시고 오늘과 같이 기술을 연마시켜 주셨다. 새 天地를 이 땅에 建設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기계, 기술 앞에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는 人間이 機械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

이처럼 龐大한 産業社會 속에서 人間은 스스로의 主權(imperium Hominis)을 喪失하고 기술이 人間을 支配하는 時期에 이르렀다. 기계, 기술사회인은 크고 無限히 複雜한 스위치판에 앉아있는 單一部호이며 통신기다.<sup>(15)</sup>

기계, 기술인은 스위치판 외에도 입체고속도로의 교차점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存在로 묘사할 수 있다.<sup>(16)</sup>

이렇게 産業이 未來의 創造가 아니라 기술 앞에 人間을 疎外시키고 人間은 機械의 한 톱니바퀴나 Assembly line의 한 位置나 누르는 단추 以上の 存在價値가 認定되지 않는 Technopolis

(6) 레위기 25 : 44—55

(7) 마태 6 : 33

(8) 마태 10 : 42

(9) William Temple, Christianity and the Social Order, p. 80.

(10) 창세기 1 : 30

(11) 창세기 2 : 19—20

(12) 창세기 3 : 17—19. 4 : 20—22

(13) 계시록 21 : 5

(14) 이사야 52 : 15

(15) Harvey Cox, The Secular City, trans. by CLS p. 56.

(16) *ibid.*, p. 70.

에서 人間自我를 喪失해 버렸다.

J. Michelet 는 機械와 人間의 關係에 대하여 “혈육을 가진 人間이 강철의 핏기없는 죽은 存在의 不變性에 따라 움직여야한다”고 한 말은 곧 人間이 機械에 예속되는 人間 모독과 自己 喪失을 단적으로 表現하는 말일 것이다.

바울 굿드가 말한대로 “사람의 손은 팔 끝을 떠나 불도저나 起重機의 첩단에 달려있고 사람의 팔은 새의 날개로 變하여 飛行機로 지탱하고 사람의 聲帶는 목을 떠나 외국 대사관의 벽에 붙은 Microphone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두뇌는 두개골을 떠나 Computer 에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神學的으로 말한다면 機械가 예수 그리스도를 代身하여 人間과 世界의 구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칼 맑스가 돈은 人間の 勞動과 그의 存在의 疏外된 本質이며 이 疏外된 存在가 그를 支配하여 그것을 崇拜한다고 하듯이<sup>(17)</sup> 인간은 機械를 神으로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機械의 正確성과 能率性 앞에 人間の 獨自의 自由는 말살된다. 기체가 돌아가는대로 人間이 適應해야 하며 機械의 命令을 거역하면 結果는 人間の 죽음 뿐이며 人間の 自由는 機械가 허용하는 時間과 軌道 위에서만의 制限된 自由뿐이다. 마치 善惡果를 擇할 수 있는 人間の 自由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지듯이 人間の 自由는 機械의 톱니바퀴에 역행하지 않는 限의 自由뿐이다.

이렇듯 機械가 활개를 치고 환상의 땅(Fantastic Land)과 來日의 땅(Tomorrow Land)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人間에게 榮光이니 이는 人間이 萬物의 主人”이라는 스윈번의 詩도 이제는 낡은 時代의 遺物에 불과할 程度로 機械가 人間の 主人, 人間の 하나님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人間은 機械의 한 부속품 같은 全體의 한 部分이 아닌<sup>(18)</sup> 순금보다 더 貴重한 存在임을<sup>(19)</sup>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 II. 人間化 作業

經濟的 發展으로 人間은 消費를 願하고 豊요한 社會를 구축하기 위한 手段과 技術에 몰두하게 되어 富를 崇拜하며 社會的 階層化를 격화시키는 굉장한 소비와 지위 추구하고 個人的인 特權慾과 物質的인 복리를 위하여 生産機械에 人間을 노예화 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sup>(20)</sup>

(17) Perry Lefevre, Man, Six interpretation tr.by Chong Sung Lee, p. 51.

(18) Presbyterian & Reformed Publ. Comp.,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ristian, tr.by Nam Sik Kim, p. 175.

(19) 이사야서 13: 12.

(20) Paul Abrecht, The Churches and Rapid Social Change, tr. by Ha Eun Chung, p. 191.

이러한 致富와 수입의 증대는 分明히 教會의 立場과 배치된다.<sup>(21)</sup> 특히 經濟發展이 급진적일 때 그 發展의 道德的 精神的 代價는 엄청난 것이다.<sup>(22)</sup> 이러한 狀況下에서 基督教人의 課業은 경제적 成長을 爲해 그 道德的 토대를 明白히 세워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결코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行爲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급진적 經濟變動에서 오는 道德的 딜레마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金錢上의 收入이 많을수록 社會의 비참은 더 깊어만 간다는 역설을 그대로 수납해야만 할 것이다.<sup>(23)</sup>

이십 세기 말에 와서 世界는 巴야흐로 現代科學에서 超現代科學으로 하나님 의 形相대로 지음 받은 人間에게서 機械人間으로, 形式內의 自由에서 決定論과 自律的 自由로 하나님과의 調和에서 宇宙的 疏外로 理性에서 마약과 新神秘主義로 오늘날의 合理主義 歷史는 흘러가고 있다.<sup>(24)</sup> 나아가서 高度의 産業化, 都市化 GNP 偶像化, Computer, Automation 의 方向은 人間의 원초적인 反抗을 이르켰고 Cybernetics는 오히려 人間과 機械의 差異點을 보여주는 結果를 낳게 되었으며 오히려 人間의 機能을 機械가 完全 代置할 수 없음을 證明하게 되어 人間機械論이란 用語는 成立할 수가 없게 되었다. 皮와 눈물도 良心도 없는 機械에게 우리의 全權을 위양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다.

Computer는 Information 만을 提供할 따름이지 스스로 決意權을 행사할 수 없는 허수아비로서 人間이 주역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人間이 機械처럼 取扱되는 非人間化를 구제할 方法은 없을가?

물티어 애들러는 말하기를 “우리가 곧 사람의 差異點을 發見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機械와 같이 取扱할 것이라<sup>(25)</sup> 고 했으며 우리가 民衆을 機械로 생각하면 사람이 機械取扱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sup>(26)</sup> 고 했다. 사람은 사람됨(Mennishness)을 向한 向上心이 있다. 人間이 巨大한 機械의 한낱 톱니바퀴 以上의 存在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sup>(27)</sup>

機械 自體는 善도 아니고 惡도 아니다. 다만 人間이 問題이다. 人間이 쓰기 여하에 따라 善과 惡으로 評價될 수 있다. 이러한 機械를 人間化할 수는 없을가? 中性的인 機械를 福音的인 角度에서 人間의 解放, 人間의 自由, 人間의 회복을 爲하여 쓰여질때 機械는 機械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 宇宙萬物의 創造主이신 것 같이 人間은 機械의 生産者다. 하나님 이 萬物 위에 超越해 계실 같이 人間도 機械 위에 초월한다. 하나님께서 萬物이 아닌 것과 같이 人間도 機械일

(21) *ibid.*, p.183.

(22) *ibid.*, p.184.

(23) *ibid.*, p. 186.

(24) Francis A. Schaeffer,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r.by Kim Jae Kwon. p. 37.

(25) *ibid.*, p. 25.

(26) *ibid.*, p. 25.

(27) *ibid.*, p. 26.

수가 없다.

이를 F. Gogarten 는 하나님과 世界의 中間에 位置한 成長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責任을 부여받은 상속자라고 했다.<sup>(28)</sup>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自己와 和睦케 하신 것과 같이 人間은 機械 안에서 機械를 自己와 和睦해야 한다.

成肉身 했다고 하나님다움을 喪失하지 않으셨던 것 같이 참 하나님으로 참人間이 되어서 부서진 人間을 人間되게 하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人間도 참 人間の 形相과 本質을 損傷當하지 않으면서 참 機械로 成肉身하여 탈선된 機械를 機械답게 가꾸고 핏기없는 강철을 따뜻하게 구원해야 할 것이다. 주후 451년 Chalcedon 會議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을 制定한 것처럼 오늘날 産業社會에서 “참 사람 참 機械”라는 새로운 Creed 는 制定할 必要가 없을까? 그래서 機械로 하여금 人間の 尊嚴과 幸福을 爲해 일하는 機械의 人間化를 이룩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서 人間の 機械化 現象을 自己卑下로만 볼 것이 아니라 機械의 人間化를 지향한 잠정적 成肉身的 과정으로 證明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化한 機械文明과 하나님 나라의 encounter 가 곧 終末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機械의 人間化를 爲해 incarnate 할 人間の 人間다움이 問題가 된다.

잡것이 안섞인 순수한 人間性, 색채를 그 색채대로 性格과 氣質을 그 氣質대로 保存한 人間, 即 人間の 소박한 원시성을 찾아야 하는데 G.K. Chesterton 이 말한 바로 그 “事物의 事物性(Thingliness of things)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걸 우리는 歷史上에 단 한 번 나타나신 “참 하나님 참 사람(Vere deus et vere homo)”에서 Imago Dei 를 發見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人間을 人間답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人間化의 神學(Theology of Humanization)이 成立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人間化 神學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진짜 創世紀는 太初가 아니라 終末에 있다고 한 것은 인간이 아직도 人間이 못 됐다는 말일 것이며<sup>(29)</sup> 아직 善에 이르지 못했다는(not-yet-good) 말일 것이다.<sup>(30)</sup>

即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에 이르러야 人間化는 그리스도의 世界로 승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形相을 따라 人間の 創造를 完成하실 것이다.<sup>(31)</sup>

人間이 아직도 人間다운 人間이 못된 現象을 우리는 罪人이라고 부른다. 이 罪人이 機械를 잡으면 人間の 機械化가 이룩되고 機械의 노예가 된다. 이 罪人이 産業化의 물결을 타면 맘

(28) Gerhard Breidenstein, Humanization, trans. by Chong wha Park, p. 45.

(29) *ibid*, p. 45.

(30) *ibid*, p. 46.

(31) *ibid*, p. 47.

몬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이 罪人이 고용주가 되면 저 Martin Buber 가 말했듯이 「나와 너」를 「나와 그것」의 체계로 바꾸어 버린다.

人間이 人間 대접을 못받을 때 마음은 위축되고 意慾은 喪失되고 感情이 반발한다. 그는 불쾌한 가운데서 어찌하지 못해 일하며 죽지 못해 산다는 좌절을 經驗한다. 人間을 物件이나 機械처럼 생각하여 함부로 抑壓 유린하고 그 自由를 박탈하면서까지 能률 극대화를 지향하여 單純한 물질적 풍요만을 기도하는 發展, 이러한 發展에 Brake 를 걸어 發展에 대한 人間的인 理解(Human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를 確立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全體主義的인 社會에서는 上向式 보다는 下向式이 能率的이라는 一次方程式的 思考에서 소위 發展의 獨裁(developmental dictatorship)라는 學說까지 등장하고 있는 世上이니 이런 틈바구니에서 人間의 尊嚴性을 지키는 것은 비단 基督教의 使命만은 아닐 것이다.

참된 人間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사랑을 나누는 人間關係의 모습일 것이다. 이 사랑은 연대責任, 自由, 創意力, 공동生活을 意味한다. 그러나 人間들은 남의 自由를 유린해야 내 自由를 누릴 수 있다고 判斷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形相인가? 그래서 人間化 作業의 原動力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sup>(32)</sup>고 하시면서 人間다움이 풍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 나라는 至今도 部分的으로 임하고 있으며 至今도 實現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人間化的 한 약속으로서 이 땅에 具體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意味한다. 말 할나위 없이 人間의 힘만으로는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하나님만으로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人間의 參與를 통해서만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들 人間의 參與를 통해서만 그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人間化作業에 참여하실 때에만 소기의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권을 잡으시고 인간이 이에 응답한다는 이 두 要素는 서로 뗄 수 없으며<sup>(33)</sup>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의 두 要素가 서로 떨어질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現象이다. 이렇게 볼때 人間은 人間化的 對相이면서 同時에 주체자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질없던 人間(homo Sapiens)이 人間性을 지닌 人間(homo humanus)으로 發展할 것이다.<sup>(34)</sup>

이러한 人間化를 지향하는 역할 차원은 어디인가? G. Breidenstein 은 “사랑”이 人間化的 바탕이며 이 사랑이란 실제로 具體的인 Program 을 作成하는데 必要的인 原理들을 모두 包含하

(32) 마가복음 1:15

(33) Breidenstein, op. cit., p. 51.

(34) *ibid*, p. 52.

는 말이라고 했다.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첫째 正義를 爲해 투쟁하라는 要求를 包含하는 말이다.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自己와 똑 같은 機會를 가져야 할 이웃을 배반할 수 없다는 말이다. 둘째 自由를 爭取하라는 要求이다.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지녀야 할 權利를 박탈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세계 平和를 수립하라는 강렬한 要求라고 했다.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살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sup>35)</sup>

가난한 者, 약한 者, 無識한 者, 절룩거리 人間 대접을 못받는 者들에게서 “人間”이라는 共通因數를 發見하여 그 人間實存 自體를 하나님의 形相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이 천대받은 場面을 우리 基督教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눌린 者를 自由케 하고 갇힌 者를 놓아 주고 눈 먼 자를 보게하고 가난한 者에게 福音을 전파하신<sup>36)</sup> 예수 그리스도의 至上 命令이 곧 人間 회복이기 때문이다.

이 회복된 人間이 自然을 開發하고 人間關係를 改善하여, 宇宙的인 구속을 지향한 神의 意志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開發된 科學기술을 地平線에 神의 王國을 建設하는 Media로 法用해야만 할 것이다.

Abraham 과 Issac 과 Jacob 의 하나님은 또한 産業化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産業化의 隊列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本來的인 人間회복이 終末論的 구속사의 한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Ⅲ. 生態學에의 接近

“Nature”紙의 편집자인 Richard Gregory 경은 自己의 비문을 다음과 같이 써두었다고 한다.

“My grandfather preached the Gospel of Christ, My father preached the Gospel of Socialism, I preached the Gospel of Science.,<sup>37)</sup>

이 얼마나 Technology 의 경악이나! Technology 의 최후의 발악상을 News week 紙의 “The Dilemma of Tokyo,”라는 Article 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卽 最惡의 汚染時代가 되면 東京의 中心街에서는 마치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듯이 산소 한 깡통을 돈 내고 들이켜야 할 時代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sup>38)</sup>

産業化의 極限狀況에 이른 이른바 先進國은 後進國의 성급한 産業化의 물결을 利用하여 工場建設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汚染 수출을 하고 있다.

(35) *ibid*, p. 54.

(36) 마태복음 11 : 5

(37) Medichael Green, Runaway World, p. 39.

(38) Francis A. Schaeffer,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p. 39.

Toynbee 教授가 現代人을 가리켜 “봉급을 週給으로 받기 때문에 歷史를 긴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者들”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서투른 産業化 때문에 긴 未來를 喪失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공장 폐수 때문에 어패류가 멸종을 當하고 工場 住民들의 集團 병발증세를 일으키게 된다면 깨끗한 産業化(Clean industrialization)에 無識했던 우리들이야말로 不遠間에 子孫들의 願望의 대상이 되고 말것이다.

이 汚染에 對한 不安은 Pop music 에까지 波及되고 있다. Door Music Company 의 “Strange Days”라는 팝송 가사는 다음과 같이 처참한 지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그들은 地球에게 무슨 짓을 했나. 그들은 내 사랑스런 누이에게 무슨 짓을 했나! 황폐와 약탈, 그리고선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네. 새벽부터 칼로 찌르고선 묶어서 질질 끌고 가버렸네.”<sup>(39)</sup>

産業化를 自然力(forces of nature)을 統制하는 能力의 增加로 본다면 産業化할수록 自然의 美는 붕괴되고 大量生産이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이것이 人間의 生存 自體를 위협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生態學의<sup>(40)</sup> 神學(a theology of Ecology)이 時急히 要請된다.

원래 生態學은 有機體와의 相互關係에 있어서 그 均衡을 유지하는 生物學的 意義로만 重示되어 왔지만은 요즈음에 와서는 그 自然의 均衡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現代人間의 問題에다 더 強調點을 두고 있다.<sup>(41)</sup>

이 말을 처음으로 使用한 사람은 獨逸 生物學者 Ernst Haeckel이며 하나의 科學으로 發展되기 始作한 것은 今世紀에 접어들면서 부터이다. 最近에 와서는 終末論의 한 分野로 取扱기도 하며 同時에 새로운 基督教 倫理學의 一部로 取扱되어 왔다. 종래의 倫理學은 “Man to Man,, 倫理學이었다. 선풍을 일으켰던 Joseph Fletcher 의 “Situation Ethics,,도 人間과 自然의 關係 即 生物學的 世界까지는 손을 뻗치지 못하였다.<sup>(42)</sup>

또한 오늘날까지 우리는 제1規範으로 良心을 얘기해 왔다. 人間과 個人의 關係, 個人과 集團의 關係는 良心이 그 規範이었다. 그러나 時代가 變하여 集團이 個人에게 集團이 集團에게는 良心으로만은 不足하여 第2 規範인 社會正義가 言及되어 왔다. 그러나 至今 技術社會가 되면서부터 生態學的 危機에 直面한 人間에게는 제3의 規範을 찾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人間과 生物과의 關係이다.

(39) *ibid.* p. 9.

(40) Ecology 는 희랍어 오이코스(*oikos*: House)에서 派生한 單語로서 Organism environment 와의 相互關係를 다루는 biology 의 한 分野이며 또한 人間과 人間이 屬한 어떤 기구와의 相互依과關係를 다루는 sociology 의 한 分野이기도 하다.

(41) Schaeffer, *op. cit.*, p. 13.

(42) Richard L. Means, *Why Worry About Nature?* p. 1.

원래부터 人間은 自然에 對한 호기심과 그 創造性에다가 사악한 侵略性을 더하여 基督教의 健全한 創造觀과 自然觀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일로 世俗化의 길을 걸어 오늘날 이와같은 都市의 악천후를 낳고 生態學的 危機를 낳고야 말았다. 이를 Schaeffer 박사는 전혀 人間의 탐욕 (man's greed) 때문이라고 잘라 말을 했다.<sup>(43)</sup> 한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어린이는 인도 어린이의 20배를 소비하고 人間 환경에 미치는 오염은 印度 어린이의 약 50배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sup>(44)</sup>

이래서 人間은 自然을 喪失하니 神을 喪失케 되고 自然(Nature)을 喪失하면서부터 自己들의 人間本性(Nature)까지 喪失하고야 말았다.

그러면 이제 環境汚染의 歷史的인 根源을 살펴봐야 하겠다.

西洋近代思想의 基調인 進歩思想은 Francis Bacon 에서 출발했다. 그는 自然을 變化시키는 科學的 發明을 극구 권장했으며 科學的 知識은 곧 自然을 征服하는 기술적인 힘을 意味한다고 했다. 그 다음은 Descartes 이다. 그의 「方法論」에서 보면 스콜라 哲學을 批判하고 知識을 人間改善의 열쇠라고 했다. 이런 知識들이 우리로 하여금 自然을 支配하는 征服者며 主人이 되게 한다고 했다. 이 學說은 自然을 죽은 客觀으로 보는데 큰 貢獻을 했다.

그 다음에 Leibnitz의 哲學에서 이 思想이 굳어진다.

人間이 地球에서 神의 섭리로 배정받은 內容은 自然을 征服해 가는 것이다. 이 自然을 資源이라고만 생각하는 人間中心主義는 즐기차게 西洋史를 이끌어가 進歩를 經濟成長과 同一한 것으로 통용하게 하고 마침내 Hegel 을 거쳐서 Marx, Lenin, Stalin 等の 唯物史觀으로 發展해 갔다. 이리하여 自然을 죽은 客觀으로 보고 人間을 爲한 利用의 對相으로 보게 된 것이 오늘의 環境 위기를 超來하고야 말았다.

人間의 학대를 받은 自然은 人間 앞에 탄원하는 情況으로 서서 萬一 人間이 寬容한다면 自然이 살 수 있지만 人間의 잘못된 決斷에 依해 죽을 수도 있다고 탄원하면서 모든 被造物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다.<sup>(45)</sup>

그래서 “은총은 自然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完成한다(Gratia non tollit naturam, sed percipit)<sup>(46)</sup>”는 St. Thomas 의 말이 Ecologic Crisis 에 直面한 人間에게 다시 한번 들려져야 할 것 같다.

잘 살기 위한 産業化의 몸부림이 人類 멸절을 재촉하는 촉매 구실을 하고 말 것이라면 여기에 이 誤導된 産業化(rebellion against God's will)를 구원할 産業化의 神學을 樹立해야 할 것

(43) Schaeffer, op.cit, p. 59.

(44) Michael Green, Jesus Spells Freedom, p. 100-101.

(45) 로마서 8 : 18-23

(46) Paul 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p. 289. \*이 Grace does not destroy nature but perfects it 란 말은 Thomas Aquinas 의 Summa Theologia 에 나오는 말이다.

(46) Lynn White 는 캘리포니아 大學校 역사 교수로서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를 썼음.

이다.

앞에서 福音이 産業化에 끼친 貢獻을 自然의 脫神話化라고 Harvey Cox 가 지적했지만 産業의 先在條件은 脫神話化이다. 人間이 Animism 의 支配下에서는 自然에 겁나서 도무지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創世紀는 自然이 人間の 目的과 Project 에 따라 支配 當하도록 주어졌다는 思想이 産業發達에 큰 貢獻을 했다.

그러나 Lynn White 教授<sup>(46)</sup>와 Richard L. Means 教授<sup>(47)</sup>는 바로 이 基督教의 創造論과 物質觀이 自然을 지나치게 파헤쳐 황폐케 만들었으므로 오늘날 産業化와 正比例하는 汚染問題를 基督教가 責任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두 教授는 生態學的 危機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汎神論(Pantheism)에서 찾고 있으며 東方의 영향을 받은 앓시시의 聖者 Francis 의 信仰 即 一種의 汎神論의인 自然觀과 견비하고 淡泊한 生活態度를 가졌던 이 聖者를 生態學的 保護神으로 추대하고 있다.

또한 Means 教授는 禪佛敎(Zen Buddhism)의 立場에서 人間과 自然과의 道德的인 次元에서 理解함이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sup>(48)</sup>

이 點에 있어서는 Alan Watts 의 “世界는 네 몸이다”와 Gary Snyder 의 “詩와 原始的인 것”에서 主張하는 이른바 基督教의 二元論的 思考는 기독교로 하여금 環境危機의 主要原因이 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生態學的 問題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主張하는 東洋의 一元論的 合一의 神秘主義를 主張하는 點과 同一하다.<sup>(49)</sup>

그러나 Francis A. Schaeffer 박사는 이러한 見解를 비난하면서 現代科學의 發達로 오는 生態學的 危機는 基督教의 責任이 아니라 世俗化한 科學의 獨走를 막지 못한 責任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군다나 汎神論이 現代의 危機를 구원할 方法은 못된다고 한다.

汎神論에 Orient 된 雜草 上의 存在가 아닌 人間(Man is no more than the grass)<sup>(50)</sup>이 혹 사병이나 뇌염의 매개체인 생쥐나 모기 한 마리 때려잡지 못한다면 구원의 方法은 커녕 汎神論이야말로 전염병 오염의 元凶 노릇밖에 할게 없지 않는가!

自然을 無條件 保存한다고 生態學的 危機가 해소 되는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創造하신 世界는 完成된 宇宙(Closed Universe)가 아니라 열린 可能的 世界(Open Universe)이다. 新天 新地가 이 땅에 建設될 때까지 自然을 利用하고 開發하여 創造의 課業을 進行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人間으로 하여금 이땅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그것을 利用하여 機械를 만들고 世界를 잘 가꾸어야 할 것이다.

自然을 신성시하면서 自然을 人間の 支配圈內로 끌어 넣음을 反對함은 오히려 自然의 存在

(47) Richard L. Means 는 미쉬간 Kalamazoo 大學의 사회학 조교수로서 “Why Worry about Nature?”를 썼음.

(48) Richard L. Means, Why Worry About Nature? p. 92.

(49) 후리츠부리, 生態學的 神學的 試圖, trans. by Phyun Sun Hwan 기독교사상 1974. 4 月호 p. 119.

(50) Francis A. Schaeffer,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p. 13.

意義에 對한 모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술 산업사회에 살면서 갑자기 원시림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産業時代に 살면서 誤導된 産業化를 깨끗한 産業化로 전향시키는 것만이 우리 基督敎의 남은 課業이다.

여기에도 역시 産業化의 주역들이 人間다워져야 하겠다.

가령 예를 들면 광산을 개발하더라도 땅 속의 자원을 캐낸후 그 자리를 메우고 그 위에 艸草를 심어 꽃 동산으로 꾸미게 한다든가, 나무를 손상함이 없이 學校建物を 들어서게 하는 方法이라든가, 運動場을 利用하면서도 Lawn Ground 를 유지하는 方法들일 것이다.

두메산골에 전기를 끌어넣기 위해 2년이 걸릴 作業을 온 산에 나무를 베어 버리고 가설을 하니 6個月에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기뻐할 게 아니라 뭔가 節次倫理가 빠져버린 아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節次倫理를 喪失한 産業化의 주역들이 高速道路를 뚫고 플라스틱 建物 안에서 온갖 전자 제품을 쓰며 Computer 에 依해 사고하면서 살도록 꾸며진 産業化의 유토피아가 바로 聖書가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聖書가 말하는 理想郷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을 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이리와 염소가 함께 누우며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강물에 고기가 뛰노는 그야말로 人間과 自然의 Utopia, 公害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人間과 自然의 全宇宙的 救援을 이사야 11章이나 요한계시록 22章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Paul 은 로마서 8장 19—23절에서 예수 재림時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被造物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自己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被造物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子女들의 榮光의 自由에 이르는 것이니라. 被造物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Paul 은 우리 몸이 죽음에서 일어날 때 自然도 同時에 구속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卽 羊의 피가 人間과 自然을 함께 구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저 유월절의 歷史的 事件에서 羊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히브리 子女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도 保護된 것과 同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人間을 그의 피로 구속한 것같이 그의 죽음은 모든 自然도 同時에 구속할 것이다.

또한 로마의 6장 8—12절에서 Paul 은 말하기를 우리 自身은 罪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人間은 언젠가는 本質的인 치유(Substantial healing) 와 더불어 完成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그 本質的인 치유란 무엇을 말하는가?

創世紀 3章에 있는 땅에 대한 저주나 女子의 解産에 대한 저주 등은 단지 外部的 表現(Outward Manifestation)에 불과하며 그보다도 실은 더 깊은 分離(Deep Separation)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sup>(51)</sup>

첫째는 하나님과 人間의 分離이다.

두째는 人間 스스로의 分裂이다. 人間은 罪의 結果, 自身으로부터 分離를 當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바로 心理學的 分離(Psychological Divisions)이며 또한 同時에 原始的 精神異常(Basic Psychosis)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分離는 人間이 다른 人間으로부터의 分離다. 이것을 社會學的 分離(Sociological Divisions)라 한다.

넷째는 人間이 自然으로부터 分離를 當하고 自然은 또한 自然으로부터 分離를 當했다. “分離, 라는 單語는 東方教會에서는 罪를 定하는 基本概念이라고 한다. 이러한 罪스러운 多樣한 分離가 그 어느날 예수 的 裁罰時에 羊의 피로 本質的인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 “어느날, 이 도적같이 忽然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現在 바로 여기에서 그 멸망의 징조들이 누적되고 있으며 具體的으로 實現되고 있다는 點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Francis Bacon 은 그의 Novum Organon 에서 “人間의 타락은 人間性的 喪失과 自然統制權의 喪失인데 前者는 宗教와 信仰으로, 後者는 藝術과 科學으로 어느 程度 회복할 수 있다.”<sup>(52)</sup> 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成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創造의 意味와 自然에 대한 人間의 支配權을 새롭게 理解하는 데 있다.

創世紀 1장 28절에 根據하면 人間에게는 創造의 낮은 질서(Lower Order)만을 支配할 수 있는 權限이 주어 졌을뿐 絕對主權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點을 發見할 수 있다. 그 絕對主權의 所有者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다.<sup>(53)</sup>

우리는 이 두가지 主權의 並行을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Talents 의 비유에서 人間의 才能이나 돈은 人間에게 屬한 것이 아니라 人間은 단지 종(Servant)이고 청지기(Steward)이며 참된 所有者를 爲해 청지기職(Stewardship)만을 가졌을

(51) *ibid*, p. 48.

(52) *ibid* p. 50.

(53) *ibid* pp. 50—51.

뿐이라는 點을 發見할 수 있다.

우리가 自然을 支配할 때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支配權을 행사하여 自然을 開發하고 이점을 불일지라도 本質的으로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人間의 支配權은 하나님의 統治權 아래에 있으므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의 善用, 管理, 增産을 爲해 우리의 支配權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sup>(54)</sup>

이와 같이 우리는 新舊約全書를 生態學的 危機와 직결시켜서 읽어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는 創世紀 1章의 被造世界를 들여다 보자. 이 기사의 根本信仰은 “創造의 善함”(Goodness of Gods Creation)이다. 太初에 하나님은 그날 그날의 創造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온다. 卽 人間創造 以前에 이미 自然은 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被造物의 價値는 人間의 效用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人間出現 以前에 그 自體들로서 하나님의 숨씨를 나타내고 그 榮光을 讚揚하는 本具의 價値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存在의 敬畏”(reverence for being—Jonathan Edwards)가 言及될 수 있다. 또한 詩편 104편이나 욥기나 마태복음 5:45, 6:26—30, 로마서 1:18을 보면 自然神學이 成立된다. 이렇게 되면 自然은 人間에게 一任되었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神이 直接 돌보시는 것으로 理解될 수도 있는 것이다.

創世紀 6章 以下の 기사를 보면 生態的 멸망의 흔적을 發見할 수 있다.

우선 1節에서는 人口 膨창을 보도하고 11절에 와서는 人口 膨창이 곧 환경을 오염케하여 땅을 황폐케 한다. 그래서 그 原因을 살펴보니 自然에 대한 人間의 態度가 醜惡하고 그 生活이 부패하였다는 事實이 들어난다. 이에 하나님은 그 創造를 후회하시고 전지면을 쓸어버리시기로 作定하였다. 義人 Noah는 이 生態學的 危機에서 “生命의 保存”(Survival of Species)이라고 하는 至上命을 듣게 된다. 그래서 모든 生物 곧 至今까지의 人間中心主義的인 價値觀을 넘어서 “生命의 保存”에 나선다.<sup>(55)</sup>

한편 人間에게는 他動物에서 發見할 수 없는 美의 感覺이 있다. 이 美의 感覺은 自然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고 恒常 美를 保存하고자 하는 傾向을 띤다. 이것 또한 生態學的 危機를 다스리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한가닥 希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教會의 機能

現代社會는 科學的, 기술적이며 고도의 管理가 그 특징이다. 이런 社會에서는 人間이 道具

(54) *ibid.*, p. 51.

(55) 서남동, 生態學的 倫理를 지향하여, 기독교사상 1972. 5. p. 142.

(Tools)나 종속적 機械처럼 다루어지기 쉽다.<sup>(56)</sup> 더구나 기술文明의 抽象化(abstraction), 一般化(generalization), 個別化(individualization), 合理化(rationalization)는 바로 非人間化의 要因이다.

성경에서는 모든 勞動者가 신성하며 또한 하나님의 創造는 그 自體를 불경하게 봐서도 안 된다.<sup>(57)</sup> 왜냐하면 萬物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이며,<sup>(58)</sup>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회도 해야 한다고<sup>(59)</sup>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hristian 들의 Technology 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그 허용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A.N. Triton 은 이에 대한 세 가지 허용 限界를 提示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創造는 尊敬되어야 하므로 우리 세대만을 爲한 것이어서도 안되며, 둘째로 自然은 自然 Course 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막을 옥토로 만들기 爲해 땅을 征服하고 땅의 動物들을 다스려 Technology 와 Agriculture 를 自然스럽게 이뤄 나가야 한다.

세째로 우리는 自然 世上을 非凡한 지혜와 복잡성으로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自然 그대로 맡겨 두면 좋은 것들을 항상 잃어버리기 마련이므로 理性을 동원하여 改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60)</sup>

産業化의 隊列에 선 企業家들에게 이런 健全한 見解를 심어 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使命 일 것이다.

더우기 Automation 의 副產物이 무엇인가? 有閑文化일 것이다. 이 有閑文化는 繁忙文化와 代置되어 근면 위주의 신성한 천부적 勞動倫理는 땅에 떨어지고 그 代身に 有閑文化의 倫理(Ethics of Leisure)가 등장하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sup>(61)</sup>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나아가서 私有資本主義體制의 利得動機는 奉仕動機를 말살하고 巨大한 Technology 는 構造惡을 자행하여 個人을 完全히 抑壓해 버렸다. 이러한 産業化의 전위대가 平和의 使徒로 군림할 수는 없을까?

産業社會는 그 어느 社會보다도 道德的 水準이 강하게 要請되며 더욱이 Leader 들에게는 더 더구나 必要한 것이다.<sup>(62)</sup>

여기에 人間의 成熟性이 요청되며 基督教의 宣敎의 視野가 펼쳐지는 것이다.

오늘의 구원이 그 어디에서 오는가? 주어야만 받고 잃어야만 얻고 죽어야만 산다는 基督教의 역설적인 救援의 經濟學(Economy of Salvation)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56) Walter Geerge Muelder, Religion and Economic Responsibility, p. 46.

(57) 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p. 84.

(58) 요한복음 1 : 3.

(59) 요한복음 14 : 12.

(60) A.N. Triton, Whose World, p. 155.

(61) 데살로니가 후서 3 : 10.

(62) H.F.R. Catherwood, The Christian Citizen, p. 69.

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個人的 靈魂과 肉體의 分離 狀態로서의 구원도 아니고 個人을 社會에서 단절시킨 孤立된 구원도 아니고 全人格的, 全社會的, 全歷史的, 全宇宙의이다.

구원은 分斷된 人間과 社會, 그리고 소외된 人間을 和解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1972년 방콕 세계 기독교 연합회 宣敎大會에 參席한 Jürgen Moltman 教授는 救援의 領域을 ① 人間을 착취하는 경제적 壓迫에서의 自由, ② 다른 人間을 非人格的으로 抑壓하고 人間性을 無視하는 政治的 壓迫에서의 自由, ③ 人間 스스로를 疏外시키고 社會로부터 단절狀態에서의 구원이라고 했다.

이러한 구원을 지향하는 教會의 役割次元은 어디인가?

Harvey Cox 教授는 그의 主著「The Secular City」 제 6 장에서 社會의 變化과정에서 教會의 세가지 機能을 宣敎的 機能(Kerygmatic function), 奉仕的 機能(Diakonic function), 親交的 機能(Koinonic function)이라고 했다.<sup>(63)</sup>

이렇게 말한 根本的인 動機는 教會가 곧 人間 회복의 先鋒隊(前衛隊)이며 또한 社會 構造的 병폐의 치유자며 나아가서 都市親交的 機能을 擔當할 수 있는 唯一한 組織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Jürgen Moltman 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希望을 품은 자는 現實을 멍청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방관자일 수가 없으며 現實 속에서 고난을 始作하고 大難을 宣言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和平한 關係를 누리려면 世上과는 싸워야 한다”고 했다.

까뮈도 말하기를 “부정을 보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犯罪의 公범자”라고 했다.

잘 살기 爲한 産業化가 원치않는 生態學的 危機를 낳고 人類 全體를 파멸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産業化 一邊倒를 치닫고 있는 우리의 現實이 非人間化되 간다면 教會는 全宇宙의 구원관을 再認識하고 人間을 그 함정에서 구출하기 爲한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親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처음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sup>(64)</sup>

이 꿈은 너무나 非現實的인 것일까? 이러한 Utopia 의 目標은 바로 人間다운 社會 속에서 가지는 참 사람의 꿈인 것이다.

그것은 倫理的인 面에서 두 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sup>(65)</sup>

첫째로 우리가 現實에 도전하여 조금이라도 人間化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근시

(63) Harvey Cox, The Secular City, trans. by CLSK. pp. 166—199.

(64) 요한계시록 21 : 4

(65) G. Breidenstein, Hamanization, trans. by Chong Wh aPark. pp. 72—73.

안적인 제약을 철저히 변혁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機能이다. 우리가 社會改革을 추진하면서도 유토피아의 꿈을 지니고 있지 못할 경우 그것은 한낱 피상적인 걸치레에 불과할 뿐 效果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로 그것은 人間化를 지향하는 行動方向을 決定해 준다.

우리가 社會改革을 추진하면서도 Utopia의 方向이 없을 경우 그것은 아무 意味도 없을 뿐 아니라 危險할 수밖에 없다.<sup>66)</sup>

이제 이 Utopia의 꿈을 社會 속에 具體的으로 實現할 Program을 爲해서 人間化의 倫理의 세 가지 基本原理를 提示하고자 한다. G. Breidenstein은 그 세 가지 原理를 自由, 平等, 우애라고 했다.<sup>67)</sup>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러나 基本的으로는 人間化를 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단의 주춧돌이 되기에 充分할 만큼 具體的이다.

人間化를 向한 Utopia의 꿈은 아직은 未完成의 꿈이다. 철학과 종교가 수세기를 거쳐 오면서 가꾸어 온 꿈이다.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기는 하나 기독교에서 가장 강렬하게 가꾸어 온 꿈이다.

이상으로 産業化가 가져오는 非人間化와 生産오염 問題를 取扱해 왔다.

人間 공해와 기술 공해가 人類로 하여금 生態學的인 危機에까지 몰아넣고 말았다면 이 危機를 終末로서 맞아드리지 말고 가능하다면 高차원적인 良心과 正義感으로 싸워 이겨 危機를 해소하고 Utopia를 建設하여 푸르고 푸른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면 한다.

여기에 오늘 기독교의 Pilot Plan을 세울 때가 왔다고 본다.

#### 參考文獻

1. Francis A. Schaeffer: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Hodder and Stoughton 1970. 93p.
2. A.N. Triton: Whose World?, I.—V. Press 1970. 191p.
3. H.F.R. Catherwood: The Christian Citizen, Hodder & Stoughton, 1969. 191p.
4. Michael Green: Runaway World. I.—V. Press 1968. 128p.
5. 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William B. Eerdman's Publ. Comp. 1972. 162p.
6. Harold O.J. Brown: Christianity and the Class Struggle, Zondervan Publ, House. 1970. 224p.
7. Michael Green: Jesus spells Freedom, I—V. Press, 1972. 128p.
8. George D. Younger: The Church and urban Power Structure, Westminster Press 1956. 88p.
9. William Temple: Christianity and the Social Order, A Pelican Book 1956. 120p,
10. Walter George Muelder: Religion and Economic Responsibility, Charles Scribner's Sons 1953.

(66) *ibid*, p. 73.

(67) *ibid*, pp.74—105.

- 264p.
11. Paul 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Harper & Row, Publishers 1963. 384p.
  12. Gerhard Breidenstein: Humanization. tr.by Chong Hwa Park. C.L.S.K. 1971. 148p.
  13. Harvey Cox: The Secular City, tr. by C.L.S.K. 1967. 383p.
  14. Paul Abrecht: The Churches and Rapid Social Change, tr.by Ha Eun Chung C.L.S.K 1967. 285p.
  15. Perry LeFevre: Man:Six Modern Interpretations. tr.by Chong Sung Lee. C.L.S.K. 1971. 145p.
  16. Francis A. Schaeffer: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r.by 생명의만씀사. Copyright ©1970. 217p.
  17. Presbyterian & Reformed Publ. Company: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ristian. tr. Nam Sik-Kim. 1971. 190p.
  18. 기독교사상 : 1972. 5.
  19. // 1970. 10.

# A Theological Viewpoint on Industrialization

Sol, Sam-yong

## Summary

### I.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 proper perspective on industrialization from a theological point of view.

Throughout history several views of nature have been advanced. I have attempted to look at the question of nature from a biblical viewpoint as a means of developing an acceptable concept of industrialization.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efforts have been made to formulate and implement a national industrialization policy. A number of weaknesses in this program are apparent.

### II. Dehumanization

#### A. Division of humanity

The ultimate purpose of industrialization is to produce a wealthy society. However, industrialization inevitably seems to result in two groups: the haves and the have nots. This is a clear weakness of capitalism. The wealthy man does not understand poverty and the poor man hates the moneyed class in the affluent society. Thus a great gap exists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 B. Man as a tool

Man must not be treated as a slave. However, the employer sometimes treats labor in the industrial society as a slave. This is true to such an extent that some people argue that, next to the military, industrial society is the most undemocratic.

There is only order and obedience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Hence, man becomes man's tool.

#### C. Man as a machine

Technology dominates man and man loses his freedom. Because the machine is more important than man in the industrial society, man is sacrificed for the machine and obeys orders of the machine.

### III. Industrialization and a Theology of Humanization.

We have to humanize the machine. The machine itself is neither good or evil; the

problem is with man. We must learn to use the machine for the liberation of man and for the restoration of humanity. Man must be the producer of the machine as God is creator of nature. Man should control machines as God controls all things in his universe. As God is not creature, so man is not the machine.

Incarnation does not mean the transformation of God. Likewise, in relationship to machines, man must preserve his essential image and essence. The machine has to be used for the sake of man's freedom and happiness. We call man a sinner if he is not humanized. If a sinner handles the machine, he becomes a slave of that instrument; and if the sinner participates indiscriminately in the wave of industrialization, he will become a slave of mammon.

Only God is able to change man properly. Jesus Christ become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ny proper theology of humanization.

The treatment of humanity in the industrial sector is usually quite unacceptable. This is because the industrial leadership has not accepted the Biblical concept for rebuilding man. This rebuilt man must develop nature and improve human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Man must use technology to build the Kingdom of God on earth.

#### V. Industrialization and a Theology of Ecology.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we are witnessing increasing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much of the beauty of God's world. A theology of ecology is demanded and this will be a part of eschatology.

Ecology means "the study of the balance of living things in nature", but as the word is currently used it means not only that but the problem of the destruction man has wrought in nature. It is related to such things as water pollution, destructive noise-levels, and air pollution in the great cities of the world.

What has brought about this ugly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ere is but one reason: man's greed.

Thomas Aquinas said: "Grace does not destroy nature but perfect it."

Francis Bacon wrote: "Man by the fall fell at the same time from his state of innocency and from his dominion over nature. Both of these losses, however, can even in this life be in some part repaired; the former by religion and faith, the latter by the arts and sciences."

Richard L. Means asserted that our ecological problem exists because of Christianity, and he proposed the pantheism of Zen Buddhism to resolve the problem. But pantheism is not the way to resolve the ecological crisis.

The only way is to come back to the Biblical view of nature and the material assets of this world. We need to try rereading the Bible: for instance Gen 1; Psalm 104; Gen. 9. 4; Rom. 8. 18—26; Rom. 6. 8—12; and Matt. 25. 14—30.